

동아시아 출토 문자 자료로 본 한자의 전파 과정*

— “岡” 용례의 재검토

方國花**

- | | |
|-----------------------|----------------------|
| I. 머리말 | IV. 한일의 “岡” 자체 사용 원인 |
| II. “岡”자의 한일에서의 사용 예 | V. 맺음말-“岡” 자체의 전파 과정 |
| III. “岡”자의 중국에서의 사용 예 | |

• 국문초록

최근에 古代人의 서사 습관을 꾸밈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금석문, 목간 등 출토 문자 자료가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漢字 한 글자 한 글자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한자의 시대적 및 공간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한자의 구체적인 전파 과정과 루트도 재현할 수 있다.

본고는 “岡”자를 예로 중국에서는 시대별, 지역별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공간적 특성이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 일본과의 소통·교류 관계를 밝힌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진 “岡” 글자체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양진시기, 남북조시기를 거쳐 수당시기까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5801). 또한 2020년11월20일에 개최된 제6회 세계인문학포럼(기간: 2020년11월19일~11월21일,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한자 사용으로부터 본 고대 동아시아의 소통·교류”를 바탕으로 수정·가필한 것이다. 원고 작성에 있어서 자료 제공, 및 수집에 도움을 주신 戴衛紅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연구교수

사용된 권위있는 글자체이었으며 이러한 글자체가 고구려, 신라를 통해 일본열도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 목간, 금석문, 岡, 이체자, 전파

I. 머리말

고대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는 한자를 매체로 소통·교류하면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한자가 중국에서 발원하여 한반도, 일본열도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한자를 중국에서 도입하여 본국의 교류 수단으로 사용하되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나라 사정에 맞춰서 변용시킨 부분도 적지 않다. 즉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의 한자 사용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한자 문화라고 하여도 3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한자가 어느 시대에나 같을 리가 없다. 한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역사가 바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온 것이다. 또한 광범위하게 펼쳐진 중국의 한자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한자 사용에는 시대적·공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당시의 서사 습관을 꾸밈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금석문, 목간·간독 등 출토 문자 자료가 증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자의 시대적 및 공간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한자가 어떻게 중국으로부터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루트가 보여져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의 역동성을 해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岡”자를 예로 중국에서는 시대별, 지역별로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공간적 특성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와의 소통·교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사용하는 자료는 출토 문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한자의 기원과 변화를 주로 논하기에 시대는 고대로 하되 한자 사용이 비교적 안착되는 당대까지로 한다. 하지만 “岡”자의 용례가 많지 않아 “岡”이 포함된 “綱”, “剛”의 용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Ⅱ. “岡”자의 한일에서의 사용 예

“岡”자는 고대 중국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체자가 사용되었으나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주로 이체자 “𡵓”이 사용되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필자가 앞서 서술한 대로이다.¹⁾ 하지만 그 후, 중국에서 새로운 출토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岡”자의 용례도 추가되고 있다. 특히 고대 일본의 출토 문자 자료에 보이는 한자는 六朝시대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는데²⁾ 이 六朝시대의 문자 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간독자료가 최근에 많이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필자의 앞의 글에서는 상세히 논의할 수 없었던 六朝시대의 “岡”자의 사용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各國에 있어서의 “岡”자의 사용 실태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어 재검토하고자 본고를 쓰게 되었다.

그럼 중국의 최신 간독자료에 서사된 “岡”자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용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자의 기발표 논문에서 이미 기재된 내용이지만 중국의 출토 자료와 비교하고 재검토하기 위해 여기서 줄거리만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고대 일본의 경우 목간에 사용된 “岡”자는 기본적으로 “𡵓” 글자체로 쓰여 있다. 주술 목간을 제외한 일상적인 문서행정에 관련된 목간에는 모두 “𡵓” 글자체가 사용되었는데 주술 목간은 비일상적인 공간에 사용된 것으로 “𡵓”을 변용시킨 다른 자형이 사용되었다. 문서행정에 관련된 목간은 “岡” 뿐만 아니라 “岡”이 부수로 쓰인 “綱”·“剛”의 “岡” 부분도 “𡵓” 글자체로 쓰였다. 고대 금석문에도 기본적으로 “𡵓” 글자체가 사용되었으나 唐나라의 서풍으로 쓰인 小治田安萬侶墓誌(729년)만이 正體字에 가까운 “崗” 형태로 쓰였다. 俗字인 “𡵓” 글자체의 사용은 육조시기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그 후 당나라의 문자 문화의 영향으로 正體字가 쓰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대 한반도의 경우, “岡”자가 확인이 되는 출토 문자 자료로는 고구려의 廣開土王碑(414년)과 廣開土王壺杆

1) 方國花, 「『岡』の使用法から見た古代東アジア諸國の漢字文化」, 『國語文字史の研究』 14, 2014, 61~87면.

2) 목간 등 출토 자료를 통해 논증한 논문으로는 鬼頭清明, 『古代木簡の基礎的研究』, 塙書房, 2010; 東野治之, 『長屋王家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등이 있다.

(415), 신라의 慶州 月城垓子 출토 木簡(6세기)³⁾가 있는데 모두 “𠩺” 글자체로 서사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은 주로 “𠩺” 글자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岡”자에는 여러 이체자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𠩺” 글자체의 사용은 어느 시대의, 또는 어느 지역의 특징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중국의 어느 시대의, 그리고 어느 지역의 한자 사용법이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의 출토 문자 자료에서의 사용 상황을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岡”자의 중국에서의 사용 예

중국에서의 한자 사용은 3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있어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대별로 나누어 시대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 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같은 시대에 여러 자체의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별 차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시대는 문자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의 先秦 시기, 문자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秦나라 시기, 漢나라 시기, 삼국 시기, 兩晉 시기, 남북조 시기, 수당시기로 나눈다.

1. 先秦 시기

주지하다시피 제일 오래된 한자라고 하면 商나라 후기, 즉 기원전 1300년쯤부터 사용하게 된 짐승뼈나 거북 등딱지에 새겨진 갑골문이라는 문자인데 갑골문에는 아직 “岡”자, 혹은 “綱”, “剛”과 같은 “岡”이 포함된 한자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岡”자, 혹은 “綱”, “剛”이 확인되는 최초의 자료로는 서주시대의 청동기 “散氏盤”, “牆盤”이 있다. 이러한 청동기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金文이라고 하는데 이 두 자료에는 “剛”이 아래 <표 1>과 같은 형태로 쓰여있다.⁴⁾

3) 가야문화재연구소, 『韓國木簡字典』, 2011에 게재된 8호 목간.

4) 孫雋, 『中國書法大字典 篆書卷』, 江西美術出版社, 2012.

〈표 1〉 서주시대 金文 중의 “剛”

散氏盤	牆盤
	

戰國시기의 楚나라 출토 문자 자료로는 楚簡이라 불리우는 대나무에 서사된 簡牘 자료가 있는데 초간에는 “剛”이 아래 표2와 같은 형태로 쓰여있다.⁵⁾

〈표 2〉 초간의 “剛”

信楊楚簡01	信楊楚簡02	上博楚簡(三)
		

<표 1>의 글자 형태를 보면 “冂+山+丿”로 구성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자체는 후세에도 사용된다.

<표 2>의 글자는 초나라 문자여서 중원의 문자와 다른점이 있으나 “剛”의 구성 요소 중 “冂”과 “刀”(丿)는 동일하다. 나머지 “山” 부분의 형태가 다르긴 하나 “山”자의 象形문자처럼 보인다. 다만 上博楚簡(上海博物館藏 楚簡의 간략표기)의 경우 신양 초간과 “山”의 형태가 달라 초나라 문자에도 여러 글자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秦나라 시기

秦나라 시기에 들어서서 문자가 통일된 이후의 “岡”, 혹은 “綱”, “剛”의 글자체를 보면 서주시대의 金文과 큰 차이가 없다. 秦나라의 문자 자료의 경우 秦簡이라고

5) 信楊楚簡은 藤壬生,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 湖北教育出版社, 2008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上博楚簡은 李守奎·曲米·孫偉龍,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五) 文字編』, 作家出版社, 2007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불리우는 간독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岡”은 天水 放馬灘 秦墓에서 출토된 1매의 죽간에서 확인이 되고, “剛”은 睡虎地秦簡과 嶽麓書院藏秦簡에서 확인이 된다. 睡虎地秦簡과 嶽麓書院藏秦簡에는 “剛”이 여러 예 보이는데 글자체로 말하자면 같은 자체로 쓰여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만 제시한다.⁶⁾

〈표 3〉 진간의 “岡”과 “剛”

岡	剛	
天水 放馬灘 秦簡	睡虎地秦簡	嶽麓書院藏秦簡
		

<표 3>의 진간 이미지를 보면 “岡” 부분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앞서 서술한 서주시대 금문에 비해 “山” 부분이 지금 쓰는 자형에 약간 가까워지긴 했으나 골격으로 되는 자체가 “岡+山”으로 구성된 글자체로 쓰였다는 점은 다름없다.

3. 漢나라 시기

진나라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왕조는 한나라로 되는데 한나라의 출토 문자 자료는 금석문도 간독도 많이 남아 있다. 금석문과 간독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표 4〉 한대 금석문 중의 “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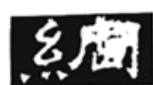
淮源廟碑 (163)	孔融殘碑* (연대 불명)
	

6) 天水 放馬灘 秦簡은 方勇, 『秦簡牘文字編』, 福建人民出版社, 2012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睡虎地秦簡은 張守中, 『睡虎地秦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嶽麓書院藏秦簡은 陳松長·李洪財·劉欣欣 등 編, 『嶽麓書院藏秦簡(壹·參) 文字編』, 上海辭書出版社, 2017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표 5〉 한대 금석문 중의 “岡”

景君碑 (142)	熹平石經殘石 (175)	譙敏碑* (187)	樊敏碑* (205)
			

〈표 6〉 한 대 금석문 중의 “綱”

石門頌摩崖* (147)	史晨碑* (169)	孔彪碑 (171)	尹宙碑* (177)	曹全碑*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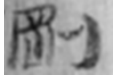
이상 <표 4>, <표 5>, <표 6>의 “岡” 부분만을 보면 선진시대에 사용되었던 “岡” 부분이 “𡵓” 형태로 변화되어 있다. 또한 선진시대 이전의 용례에는 보이지 않았던 “岡” 형태의 사용 예가 눈에 뜨인다. 이는 “𡵓”의 하나의 변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𡵓”의 좌우의 두 세로획을 길게 쓴 자체가 바로 “岡”이다. 이 자체는 이후에 정체자로 불리우게 되며 현재까지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岡” 형태를 약간 변용시킨 자형이 孔融殘碑에 보이는데 孔彪碑의 예도 파손된 부분이 있어 확실하지 않으나 같은 자형일 가능성이 높다.

〈표 7〉 한간 중의 “岡”, “綱”

岡	綱			
馬王堆	馬王堆	北大藏	居延	五一廣場
				

7) 〈표 4〉, 〈표 5〉, 〈표 6〉 중 *표를 단 금석문은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漢字字體變遷研究のための拓本データベース」(대표: 安岡孝一)(<http://coe21.zinbun.kyoto-u.ac.jp/djvuchar>)에 게재된 탁본 이미지를 사용. 아래 금석문 자료는 특히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두 이 데이터베이스로 자형을 확인하였다. 淮源廟碑는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景君碑, 熹平石經殘石, 孔彪碑는 孫隼, 『中國書法大字典 隸書卷』, 江西美術出版社, 2012에 게재된 이미지를 사용.

〈표 8〉 한간 중의 “𠂔”

馬王堆	張家山	銀雀山	北大藏	敦煌	武威儀禮	五一廣場
						

<표 7>, <표 8>은 간독에서의 용례인데⁸⁾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어지고 40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존속하였기에 시대 순서에 따라 용례를 배열하였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대가 새로워진다. 이 두 표의 자형을 보면 큰 틀에서는 금석문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앞부분, 즉 후한시기의 용례 중 “𠂔” 부분이 선진시대의 용례와 같이 “𠂔” 형태로 쓰인 예가 남아있는데 이는 후한시기에도 “𠂔+山”로 된 글자체의 사용이 계속된 사실을 말해준다. 후한 중기의 北京大學藏 西漢簡에는 정체자 “𠂔”으로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정체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隸書가 표준적인 형태로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⁹⁾ “𠂔”은 “𠂔”의 “𠂔” 부분의 양쪽 변 길이를 길게 쓴 자체이다.

이와 같이 한나라의 간독 용례로부터 한나라 시기에는 주로 “𠂔”와 “𠂔” 두 글자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五一廣場 동한간과 같이 “𠂔”의 윗부분에 빠침이 1획 더 있거나 “𠂔”의 첫 번째 획을 길게 쓴 형태도 보이긴하나 이는 “𠂔” 자체의 변용된 형태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리고 금석문과 간독 용례 전체를 통해 한나라 시기에 들어서서부터 정체자로 불리우는 “𠂔” 글자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표 7>, <표 8> 중 馬王堆 한간의 출처는 陳松長, 『馬王堆簡帛文字編』, 文物出版社, 2001. 張家山 한간의 출처는 張守中, 『張家山漢簡文字編』, 文物出版社, 2012. 銀雀山 한간의 출처는 駢宇騫, 『銀雀山漢簡文字編』, 文物出版社, 2001. 北大藏(北京大學藏西漢竹書의 간략 표기) 한간의 출처는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北京大學藏西漢竹書』, 上海古籍出版社, 2016 게재 01-04호(蒼頡篇)과 20-59호(道德經). 居延 한간과 武威儀禮簡의 출처는 佐野光一, 『木簡字典』, 雄山閣, 1985. 돈황 한간의 출처는 甘肅文物考古研究所, 『敦煌漢簡』, 中華書局, 1991 게재 馬圈灣유적 344호. 五一廣場 동한간의 출처는 長沙市文物考古所 등,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貳)』, 中西書局, 2018 게재 504호, 619호.
- 9) 한무제 시기에 예서가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형태로 형성되며 北京大學藏 西漢簡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王曉光, 「長沙尚德街東漢簡與東漢後期墨書研究」, 『書法史研究』 358, 2019, 134면).

4. 삼국시기

삼국시기 즉 魏, 蜀, 吳 나라의 출토 문자 자료 중 “岡”, “綱”, “剛”의 용례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魏나라, 吳나라의 금석문과 吳나라의 간독자료가 있다.

〈표 9〉 삼국시기 금석문 중의 용례

剛	綱	岡
受禪碑 (220)	孔子廟碑 (220)	天發神讖碑 (276)
		

<표 9> 중 “剛”, “綱”은 위나라, “岡”은 오나라 시기의 용례인데 한나라 시기와 마찬가지로 “岡” 부분은 “𡵓”와 “岡” 두 글자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10〉 장사 주마루 오간의 “岡”, “剛”¹⁰⁾

岡		剛	
捌 · 1255	肆 · 2017	壹 · 1384	參 · 2296
			

오나라의 경우, 표10을 보면 “岡”과 “剛”의 “岡” 부분의 글자체는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왼쪽으로부터 보면 정체자 “岡”에 비슷한 자체 외에 “𡵓”, “𡵔”, “𡵕” 자체가 사용되어 있다. “岡”은 2점, “𡵓”은 1점, “𡵔”은 1점의 간독에 확인되는데 “𡵕”은 22점의 간독에 보여¹¹⁾ “𡵕” 자체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𡵓”은

10) 走馬樓簡牘整理組,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 壹~玖, 文物出版社, 2003~2019에 게재된 이미지 사용. 같은 글자체가 여러 간독에 확인될 경우, 상태가 좋은 이미지를 선택. “捌 · 1255”, “肆 · 2017”, “壹 · 1384”, “參 · 2296”의 한자 숫자는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의 권수를 나타내고 아라비아 숫자는 목간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11) 글자 형태가 선명한 예만 계산에 넣었다.

“𡵓”의 “山”의 마지막 획을 가로로 찍은 자체이며 “𡵓”은 “𡵓”에 가로획을 하나 더 추가한 자체이므로 모두 “𡵓”으로부터 변용된 자체로 볼 수 있다. “山”의 마지막 획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찍어서 “𡵓”으로도 “𡵓”으로도 볼 수 있는 용례가 있어¹²⁾ 이러한 서사 습관을 통해 “𡵓”, “𡵓” 자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武”자의 “止”을 “山”으로 쓴 예도 있어¹³⁾ 그 당시 한자의 한 부분으로 쓰일 때 “止”과 “山”은 서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기의 경우, 오간의 간독 용례로부터 한나라에 비해 많은 이체자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삼국 오간 문자는 예서가 해서화되고 해서가 발전되는 단계이며 한자 자형이 크게 개변되어 전예초행해서의 여러 서체가 함께 사용되며 자체 구성이 크게 조정되므로 俗體字, 異體字가 특별히 돌출되어 중고한자 발전 중 전형적인 단계라고 지적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서체의 변화가 이체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되겠지만 또한 書寫者의 서사 습관도 관여된다고 생각한다.

5. 兩晉 시기

동진, 서진 즉 兩晉 시기의 경우 출토 문자 자료가 별로 많지 않다. 그 중 “岡” 혹은 “綱”, “剛”이 확인되는 자료로는 금석문 자료 3점, 서진 시기의 간독자료가 있다.

〈표 11〉 양진시기 금석문 자료의 “綱”, “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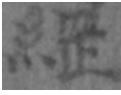
綱	岡	
辟雍碑(278)	華芳墓誌(307)	謝鯤墓誌(323)
		

- 12) 走馬樓簡牘整理組,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 壹, 文物出版社, 2003에 게재된 6693호 목간. 이 간독의 “剛”은 “𡵓” 형태로 쓰여있다.
- 13) 走馬樓簡牘整理組,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 肆, 文物出版社, 2011에 게재된 971호 목간. 이 간독의 “武”는 “𡵓” 형태로 쓰여있다. “山” 부분의 자획은 아래 글자 자획이다.
- 14) 王保成, 『三國吳簡文字研究』 安徽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표 11> 중 謝鯤墓誌¹⁵⁾만이 동진 시기이고 나머지 두 용례는 서진시기이다. 동진과 서진 시기의 “岡”자는 “𡵓” 자체로 새겨졌는데 서진 시기의 “綱”자는 “糸”에 “𡵓”을 붙인 자형으로 되어있다. 이 두 글자체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호남성 郴州에서 출토된 蘇仙橋晉簡으로 불리우는 서진시기의 간독에는 “𡵓” 자체만이 확인된다.

<표 12> 소선교진간의 “岡”, “綱”¹⁶⁾

岡		綱	
C2-234	C2-240	C3-114	1-15
			

<표 12>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소선교진간의 도판 중, “岡” 혹은 “岡”이 포함된 한자 “綱”의 용례를 모은 것이다. 아직 정식 보고서가 출판되어 소선교진간 전체의 이미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황으로 보아 주로 “𡵓” 자체가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상 용례로 보아 兩晉 시기에는 “𡵓” 자체를 많이 사용하되 “𡵓” 자체도 사용되었다.

6. 남북조 시기

남북조 시기 이후의 사료로는 간독자료가 있긴 하나 소량이 중국 각 지방에 흩어져

15) 孫雋, 『中國書法大字典 隸書卷』, 앞의 책.

16) C2-234, C2-240, C3-114는 宋少華, 張春龍, 鄭曙斌, 黃樸華編, 『湖南出土簡牘選編』, 岳麓書社, 2013에 기재된 일련번호이며 이미지도 본서에 의한 것이다. C2-240에는 “岡”이 2곳 쓰였으나 아래부분의 “銀坊岡”의 “岡”자는 자획이 선명하지 않아 표12에 수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판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른 용례와 같은 “𡵓” 자체로 쓰여있다. 1-15는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郴州文物處, 『湖南郴州蘇仙橋遺址發掘簡報』, 『湖南考古集刊』 8, 2009에 기재된 일련번호이며 해당 간독의 이미지는 본 발굴 간략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있고 “岡”자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석문은 많이 남아있고 “岡”, “綱”, “剛”의 용례도 많아 금석문 자료로 이 시기의 사용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조의 경우 齊나라의 劉顥買地券(485년)에 “岡”자의 용례가 보이는데 “𡵓” 형태로 쓰여있다. “岡” 부분은 “𡵓”의 아래가 선명하지 않으나 “山”의 초서로도 “止”의 초서로도 볼 수 있는 “乚” 형태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조의 용례로는 현단계에서는 이 용례 하나만이 확인되었지만 북조시대의 용례는 아주 많다. 그중 북위의 용례가 제일 많아 북위 시기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글자체의 사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岡”자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岡”자의 용례가 17건 되어 분포 상황을 고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剛”과 “綱”의 용례는 분포도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 “剛” 혹은 “綱”의 용례가 보이는 경우는 추가하였다.



〈그림 1〉 북위 시기의 “岡”자 자형 분포도¹⁷⁾

北魏의 “岡”자 용례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하남성 洛陽에서 출토된 墓誌에 새겨진 예인데 낙양에서 출토된 묘지만을 보아도 여러 글자체가 사용되어 있다. 하지만 “𡵓”

17) 이 중국 지도의 출처는 地圖窩(<http://www.onegreen.net/maps/HTML/62969.html>)이다. 〈그림 2〉의 출처도 이와 같다.

자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𡵓” 윗부분에 “山”을 단 자체를 비롯하여 “𡵓” 왼쪽에 “山”을 단 자체, “岡” 왼쪽에 “山” 혹은 “土”를 단 자체, “岡” 안의 “山”이 “止” 혹은 “ㄷ” 형태로 쓴 자체 등 여러 자체가 사용되었다. 東魏, 西魏, 北齊, 北周의 “岡”의 사용 상황도 북위와 비슷하다. 모두 “𡵓” 자체의 용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山”을 위에 쓴 자체의 용례가 많이 보이고 “剛”도 “𡵓” 오른쪽에 “丨”를 단 자체로 쓰인 것으로 보아 북조시대에도 쓰인 글자체로 생각된다.

7. 수나라 시기

수나라 시기에 들어서서도 금석문 자료를 보면 “岡”은 남북조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글자체로 쓰여져 있다.

〈표 13〉 수나라 금석문 중의 “岡”, “剛”, “綱”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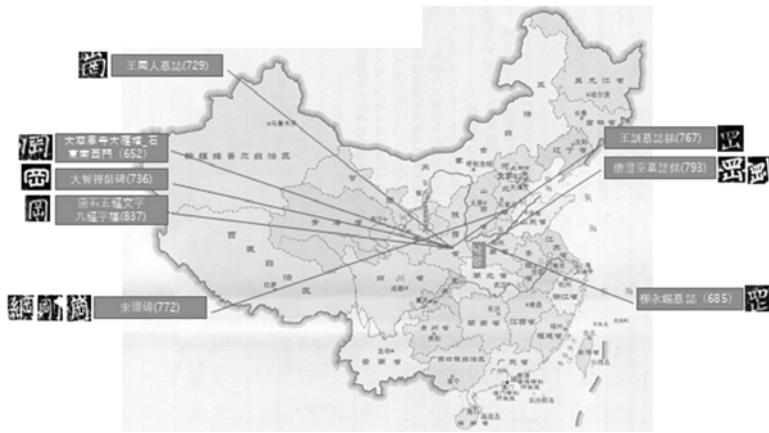
岡	剛		綱		
曹海凝 墓誌(615)	龍藏寺碑* (586)	房山佛經殘 石(연대불명)	趙朗暨妻孫氏 墓誌* (613)	大往聖窟摩崖 (589)	南宮隋碑 (591)
					

〈표 13〉을 보면 “岡”을 “𡵓” 자체로 쓴 예는 확인되지 않으나 “綱”의 “岡” 부분은 “𡵓”형태로 쓴 예가 보여 “𡵓” 글자체는 수나라 시기에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당나라 시기

당나라 시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많은 이체자 사용이 계속된다.

18) 수나라의 용례 중 글자 형태가 선명한 예만 선택. *표가 있는 두 자료의 출전은 모두 孫隲, 앞의 책. “龍藏寺碑”는 楷書卷에, “趙朗暨妻孫氏墓誌”는 隸書卷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2〉 당나라 시기의 “岡”자 자형 분포도¹⁹⁾

<그림 2>는 당나라 시기의 “岡” 용례를 자형별로 묶어 그 자형이 사용된 지역을 표시한 분포도이다. <그림 1>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에 “岡”과 “綱”의 용례가 보일 경우 이 글자의 이미지도 함께 수록하였다.

<그림 2>를 보면 “𡵓” 자체로 쓴 금석문 자료는 낙양에 남아 있고 “岡” 자체는 모두 서안에 남아 있으며 “𡵓”은 낙양과 서안에 각각 1예씩 남아있다. 이 세 글자체 모두 당시의 수도권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어느 자체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岡”과 “綱”의 사용 상황을 보면 “綱”의 경우 “岡” 부분이 정체자 “岡”로 쓰인 예가 제일 많아 17점의 금석문 자료에 확인되고 “𡵓” 자체는 12점의 금석문 자료에 확인되며 “𡵓”은 8점의 금석문 자료에, “𡵓”은 5점의 금석문 자료에 확인된다. “岡”의 경우, “岡” 부분이 “𡵓” 자체로 쓰인 예가 제일 많아 도합 16점의 금석문 자료에 확인되고 정체자 “岡”은 11점, “𡵓” 자체는 5점의 금석문 자료에 확인되고 “𡵓”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 남북조 시대와 마찬가지로 “岡” 부분이 “𡵓”, “岡” 안의 “山”이 “止” 혹은 “ㄣ” 형태로 쓴 자체 등 여러 자체가 보인다. 그 중 한일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𡵓”의 용례는 결코 적지 않아 당나라 시기에도 많이 사용된 글자체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 「漢字字體變遷研究のための拓本データベース」로 “岡”의 용례를 검색하면 “𡵓” 자체가 5예 확인이 되나 方國花, 앞의 논문에 의하면 이는 모두 “岡”의 이체자이므로 이 분포도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岡”과 “綱”의 “岡” 부분은 “𡵓” 자체로 쓴 예도 있다.

하지만 당나라 말기에 들어서서부터 이체자의 사용은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정체자로 불리우는 “岡” 자체로 통일하게 된다. 특히 당나라시기의 서예가인 顔眞卿에 의해 서사된 “多寶塔碑”(752년), “臧公神道碑”(763년), “宋璟碑”(772년) 등에는 모두 “岡” 자체가 사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顔眞卿은 『干祿字書』의 저자인 顔元孫의 조카이며 『干祿字書』를 돌에 새겨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이다. 『干祿字書』은 한자의 자체 사용을 규범화하는 자전으로 그 후 같은 성격의 『五經文字』·『九經字樣』 등이 편찬되면서 당대 후반기 이후로는 정체자로 불리우는 규범화된 자체를 사용하게 된다.²⁰⁾ 당나라 말기 이후의 “岡”의 정체자 사용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IV. 한일의 “𪛗” 자체 사용 원인

앞서 “岡”이 정체자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干祿字書』에 기재된 “正”, “俗”, “通” 3종류의 글자체 규범에 의한 것이다. 이 고사전에 의하면 “岡”, “剛”은 “正”, “𪛗”과 “𪛗”에 “丿”을 단 자체는 “通”으로 기록되어 있다²¹⁾. “通”은 “所謂通者, 相承久遠”(이른바 ‘통’이란 오랜 옛날부터 相承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계승되어 온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앞 부분의 중국 출토 문자 자료의 용례로부터 “𪛗”은 서주시대로부터 사용된 자체임이 확인되었고 『干祿字書』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된다. 한편 “岡”은 한나라 시기부터 사용된 글자체였다는 것도 출토 문자 자료로부터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진 “𪛗”은 중국 출토 문자 자료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부터 확인이 된다. 그 후 양진시기, 남북조시기를 거쳐 수당시기까지 사용된 글자체이긴 하나 『干祿字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20) 藤枝晃은 당나라 시기의 이러한 자전 편찬을 통해 한자 자체 사용이 규범화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楷書正體化運動”이라 부르고 있다(藤枝晃, 「楷書の生態」, 『日本語の世界三 中國の漢字』, 中央公論社, 1981).

21)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干祿字書1卷』 文化14刊(<https://dl.ndl.go.jp/info:ndljp/pid/2539641/9>) 사용.

“𠄎” 자체에 관해서는 6세기 말~7세기 초에 편찬된 『正名要錄』(郎知本 지음)²²⁾에 “綱”은 옛스럽고 표준적인 자체(古而典者)이며 “經”은 당시(今) 쓰이는 簡要한 자체(今而要者)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 내용으로부터 필자는 기발표 논문에서 “𠄎” 자체는 육조시기에 사용된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본고에서는 출토 문자 자료에 사용된 “𠄎”의 사용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오나라, 동진 등 육조 시대에 확실히 “𠄎” 자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서진시기, 북조시 대에도 “𠄎” 자체는 사용되었기에 이는 육조시대, 혹은 남조시대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삼국시대 이후에 많이 사용된 이체자 중 하나이다.

이상, “𠄎”의 이체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사용되는 글자체에도 변화가 있어 시대적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지역적인 변화에 의한 특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주변국가, 즉 한자 문화의 受容側으로 되는 한반도나 일본열도의 경우, “𠄎” 자체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역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왜 고구려시대의 광개토왕비나 신라 월성해자 목간, 그리고 일본 목간에는 그 당시 많이 사용된 “𠄎”의 여러 이체자 중 “𠄎”을 受容했을까? 井上秀雄는 “𠄎”을 “𠄎”의 간략 문자로 보고 이 글자체가 광개토왕비의 주인공으로 되는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이름에 사용된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략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한다.²³⁾

하지만 출토 문자 자료의 사용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𠄎” 자체가 중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마루 오간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마루 오간의 사용례로 보았을 때 인명에 쓰인 “𠄎”자가 “𠄎” 자체로도 “𠄎” 자체로도 쓰인 것으로 보아 이는 서사자의 서사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침주 소선교진간의 경우, 앞 부분에서도 간단히 서술했지만 “𠄎” 자체 만이 사용되었다. 침주 소선교진간은 서진 계양군(桂陽郡) 郡府 문서로 소개되고 있다.²⁴⁾ 그 후 간독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단순한 군부 문서가 아닌 郡, 縣의 上計文書

22) 敦煌 莫高窟에서 발견된 英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整理番號S.388의 敦煌문서. “국제 敦煌 프로젝트”(http://idp.bl.uk)에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다. 敦煌문서에 관해서는 본사이트를 참조.

23) 井上秀雄, 『異體文字の世界』, 『古代朝鮮史』, NHK市民大學, 4-6, 1988.

24)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郴州文物處, 앞의 논문.

즉 “計階簿”라는 지적이 있다²⁵⁾. 計階簿는 郡國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를 가르키므로 이 간독은 중앙에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詔書”로 시작되는 간독이 있는데 이 간독의 “紀綱”의 “綱”자는 “經” 자체로 쓰여있다²⁶⁾. 이러한 사례로 보아 “經” 자체 사용은 단지 당시 사용된 간요한 자체일뿐더러 詔書나 중앙에 제출하는 문서에도 사용되는 비교적 정식적인, 권위있는 글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나라에서는 “南宮隋碑”, 즉 “南宮令宋君爲敕建僧尼二寺碑”라는 隋文帝에 의해 건립된 비석에 “經” 자체가 사용되었고 당나라에서는 당시 東都로 사용되었던 낙양에서 “經” 자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經” 자체의 사용 배경으로 보아 “經” 자체는 단순히 육조시기에 많이 사용된 글자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수도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조서나 중앙에 제출되는 공문서에도 사용된 권위있는 글자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위상이 고구려에 전해져 광개토왕비에 사용되었을 것이며 그 후, 신라와 일본에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V. 맺음말-“經” 자체의 전파 과정

이와 같이 “經” 자체는 그 사용 상황으로 보아 한반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얼마전에(2020년9월2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공개된 皇侃(488-545)에 의해 서사되었다고 하는 『論語義疏』 사본이 『論語』의 最古 사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사본에 서사된 “岡”자의 “岡”도 “經” 자체로 쓰여있다. 이 사본을 구매하여 공개한 慶應義

25) 戴衛紅, 「從湖南省郴州蘇仙橋遺址J10出土的晉簡看西晉上計制度」,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學刊』 8, 商務印書館, 2013; 孫祥軍, 「從新出土湖南郴州蘇仙橋晉簡看《漢書·地理志》之史源」, 『南京曉莊學院學報』 4, 2014.

26) 『湖南出土簡牘選編』(앞의 책)에 게재된 1-15호 간독. 이 간독의 판독문은 발굴 간략 보고서(주17)에 “詔書人事意氣干亂奉公外內濁經紀不”로 소개되어 있으나 <표 12>에서 알 수 있다 싶이 “岡” 부분은 “經” 자체로 쓰여 있다.

塾大學校의 전시 도록에는 해당 사본의 字體가 중국 남북조시대에 속하고 또한 이 시기의 필법을 전하고 있다고 하며 遣隋使 혹은 遣唐使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수나라 시기 이전의 鈔本으로 추측된다고 한다²⁷⁾. 하지만 동시기의 한반도의 傳承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다.

남북조시기의 사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역시 “剛”의 “岡” 부분을 “𠂔” 자체로 쓴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敦煌문서를 보면 『大般涅槃經』(S.81. 506년), 『華嚴經』(S.2067. 513년), 『摩訶摩耶經』(P.2160. 586년) 등 문서의 “剛”의 “岡” 부분은 모두 “𠂔” 자체로 서사되어 있다²⁸⁾. 특히 『華嚴經』은 이체자 사용율이 1%에도 달하지 않는 公的인 문서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적인 문서에도 “𠂔” 자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 글자체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²⁹⁾ 이는 앞서 목간의 용례로도 확인한 바이다. 이러한 史料의 용례 분석을 통해 “𠂔” 자체는 단지 民衆에서 사용된 俗字가 아니라 중국 남북조시기에 성행한 글자체이며 공문서 혹은 공적인 문서에도 사용된 권위있는 글자체라는 필자의 추론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용법이 직접 일본열도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6세기 단계의 일본의 출토 문자자료를 보면 수량이 아주 적고 한자를 문서행정에 도입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구려를 거쳐 백제나 신라에 전파되고, 그것이 일본으로 다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는 이 3개국의 지리 위치,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출토 문자 자료의 연대로부터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나라 시기 이후의 전파 양상은 변화가 있다고 본다. “𠂔” 자체는 중국에서는 당나라 중후반기에 들어서서 『干祿字書』 등 일련의 자체 규범에 관한 자전이 편찬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일본의 경우, 한자 문화가 『干祿字書』 이전에 이미 전파되어 규범화된 자체가 아닌 “𠂔” 자체를 사용하는 남북조시기의 문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기반이 있었기에 주로 “𠂔” 자체를 사용하였으나

27) 慶應義塾圖書館, 『第32回慶應義塾圖書館貴重書展示會 古代中世 日本人の讀書』, 2020. 이 전시회 도록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미카미 요시타카(三上喜孝)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8) 漢字字體規範史データセット 保存會, “漢字字體規範史データセット”(http://www.hng-data.org/index.ja.html) 및 “국제 둔황 프로젝트”(http://idp.bl.uk)로 용례를 검색하고 자형을 확인하였다.

29) 石塚晴道等, 「漢字字體規範データベースの構想と發足」, 石塚晴道編, 『漢字字體史研究』, 勉誠出版, 2012.

遣唐使에 의해 당나라 한자 문화가 직접 영향 받게 되면서 일부 지식인 속에서는 정체자인 “岡” 자체도 사용하게 된다. 唐나라의 서풍으로 쓰인 小治田安萬侶墓誌(729년), 金剛場陀羅尼經(686년. 일본에서 서사된 最古의 經書)에는 정체자가 사용되어 이를 좌증하는 것으로 된다.³⁰⁾

투고일: 2020.10.30

심사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7

30) 이 두 용례에 관해서는 방국화, 앞의 논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 가야문화재연구소, 『韓國木簡字典』, 2011
- 甘肅文物考古研究所, 『敦煌漢簡』, 中華書局, 1991
- 慶應義塾圖書館, 『第32回慶應義塾圖書館貴重書展示會 古代中世 日本人の讀書』, 2020
- 鬼頭清明, 『古代木簡の基礎的研究』, 塙書房, 2010
- 東野治之, 『長屋王家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 藤枝晃, 『楷書の生態』, 『日本語の世界三 中國の漢字』, 中央公論社, 1981
- 藤壬生,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 湖北教育出版社, 2008
- 方國花, 「「岡」の使用法から見た古代東アジア諸國の漢字文化」, 『國語文字史の研究』 14, 2014
- 方 勇, 『秦簡牘文字編』, 福建人民出版社, 2012
- 駢宇騫, 『銀雀山漢簡文字編』, 文物出版社, 2001
- 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北京大學藏西漢竹書』, 上海古籍出版社, 2016
- 石塚晴道等, 「漢字字體規範データベースの構想と發足」, 石塚晴道編, 『漢字字體史研究』, 勉誠出版, 2012
- 孫祥軍, 「從新出土湖南郴州蘇仙橋晉簡看《漢書·地理志》之史源」, 『南京曉庄學院學報』 4, 2014
- 孫 隼, 『中國書法大字典 篆書卷』, 江西美術出版社, 2012
- _____, 『中國書法大字典 隸書卷』, 江西美術出版社, 2012
- 宋少華, 張春龍, 鄭曙斌, 黃樸華編, 『湖南出土簡牘選編』, 岳麓書社, 2013
- 王保成, 『三國吳簡文字研究』 安徽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 王曉光, 「長沙尚德街東漢簡與東漢後期墨書研究」, 『書法史研究』 358, 2019
- 李守奎·曲冰·孫偉龍,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五) 文字編』, 作家出版社, 2007
- 長沙市文物考古所 等,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貳)』, 中西書局, 2018
- 張守中, 『睡虎地秦簡文字編』, 文物出版社, 1994
- _____, 『張家山漢簡文字編』, 文物出版社, 2012
- 戴衛紅, 「從湖南省郴州蘇仙橋遺址J10出土的晉簡看西晉上計制度」,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學刊』 8, 商務印書館, 2013
- 井上秀雄, 「異體文字の世界」, 『古代朝鮮史』, NHK市民大學, 4-6, 1988
- 佐野光一, 『木簡字典』, 雄山閣, 1985
- 走馬樓簡牘整理組,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 壹~玖, 文物出版社, 2003~2019
- 陳松長, 『馬王堆簡帛文字編』, 文物出版社, 2001
- 陳松長·李洪財·劉欣欣 等 編, 『嶽麓書院藏秦簡(壹-參) 文字編』, 上海辭書出版社, 2017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郴州文物處, 「湖南郴州蘇仙橋遺址發掘簡報」, 『湖南考古集刊』 8, 2009
- 漢語大字典字形組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四川辭書出版社, 1985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漢字字體變遷研究のための拓本データベース」(대표: 安岡孝一)(<http://coe21.zinbun.kyoto-u.ac.jp/djvuchar>)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干祿字書1卷』文化14刊 (<https://dl.ndl.go.jp/info:ndljp/pid/2539641/9>)

국제 둔황 프로젝트, (<http://idp.bl.uk>)

漢字字體規範史データセット保存會, “漢字字體規範史データセット” (<http://www.hng-data.org/index.ja.html>)

The Propagation Process of Chinese Characters from East Asia

Fang, Guo-hua

Recently, data such as inscriptions on ancient bronzes and stones and Wooden Documents have been increasing. This allowed us to know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and to discover the histor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characters. Thus, the specific propagation process and root of Chinese characters can also be reproduced.

This paper considered how the “岡” character was used in China, for example, by era and region. It also revealed its communication and exchange relations with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by examining how these histor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ffected Ea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𠂔” which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was a dignified writing style that was used from the Sanguo(三國) period of China to the Liangjin(兩晉) period and Suitang(隋唐) period. And we were able to reveal that these letters were introduced to Japan through Goguryeo(高句麗) and Silla(新羅).

Key Words : Wooden Documents, inscriptions on ancient bronzes and stones, 岡,
Variant Forms of Chinese Characters, spread

